

구취(口臭) 제거

입에서 냄새(口臭) 나는 사람이 많다. 흔히들 입에서 냄새나는 것을 덜어줄까 하여 담배나 은단을 먹는 사람들이 많다. 구취는 확실히 본인도 증지않지만 특히 타인에게도 불쾌감을 준다. 대화를 나눌때 입에서 풍겨 나오는 냄새로 인해 낭패 당하는 일이 많다. 어떤사람은 구취를 없애기 위해 열심히 이를 닦는 사람을 본다. 이를 잘 닦고 은단을 먹는다고 구취가 제거되지는 않는다. 물론 일시적으로 다소는 효과적이거나 근본적인 구취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입안이 불편하면 냄새가 나는 경우도 많다. 구취의 원인은 충치(齲齒)나 풍치(風齒)로 인함이 대부분이다. 대개 충치가 많이 진행되면 그부식(腐蝕)에서 오는 냄새가 심하다. 치석(이똥)이나 니코틴침착, 음식물부착으로 인한 잇몸의 만성염증(치은염)으로 피가 잘 나고 고름기가 있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매우 불쾌한 냄새를 풍긴다. 물론 이를 잘 닦지 않으면 이사이애 끼거나 물어 있는 음식편의 부패로 냄새가 난다. 입안은 침액(唾液)이있고 체온을 유지하고 있어 음식물은 곧 부패하기 쉬운 곳이다. 음식물의 부패

는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냄새를 풍기지만 충치를 일으키는 절대적인 원인이 되기도한다. 이를 잘닦으면 이러한 음식물 부패로 인한 구취는 막을 수 있으나 썩어가는 충치나 피와 고름이 나는 잇몸염증에서 오는 구취는 결코 잘닦는 것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치과치료만이 해결해 줄 수 있으며 때로는 고질화된 풍치는 치료에도 곤란한 일이 많다. 구취는 또한 잘맞지 않는 보철물, 의치(義齒)로 인함도 많으며 특히 돌파리 의사에게서 한 저질의 금속으로 만들어 해 넣은 이들이 냄새를 많이 풍기기도한다. 또타액의 부패, 담배, 알코올 증독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치과적 원인외에 편도선염, 인후염(咽喉炎) 비강(鼻腔)질환의 위폐양, 위암등의 소화기질환 기관지염이나 폐렴의 호흡기 질환. 간경변증(肝硬變症)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구취가 있다고 하여 담배를 피우거나 은단을 먹거나 열심히 이를 잘 닦는다고 근본적인 구취해결은 안되며 다만 먼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내어 그원인을 제거하는 길이 구취를 없애는 근본책이라 하겠다.